"올바른 가습기 사용으로 촉촉한 겨울 나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물통 별도 소독

수돗물 보단 끓여서 식힌 물 사용

영유아 있는 가정 화상 위험 주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만큼 가습기의 청결한 관리는 필수다. 특히 초음파 가습기의 경우 자외선 살균기와 정수 장치가 장착돼 있으나 살균력이 약해 1주일에 두 세 번은 따로 물통을 살균, 소독해 줘야 한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기상청은 대륙고기압의 발달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될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기온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체내 수분 증발은 그만큼 많아져 안구건조증, 감기 등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날씨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실내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각종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실내의 공기는 55~60%의 습도가 적절한데, 적정 습도조절로 건조한 계절이나 장소에서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습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조해진 피부 때문에 가습기는 필요하기는 하나 사용을 해도 될는지 머뭇거려지는 것이 사실. 지난 2011년부터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산모·영유아 등의 사망이 잇따르고,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가습기의 사용이 급격히 줄은 탓이다.

최근에는 물레방아처럼 생긴 디스크가 제품 안에서 돌아가면서 공기와 물을 접촉시켜 먼지는 빨아들이고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다시 실내로 배출하는 자연기화 방식의 새로운 가습기인 에어워셔의 매출이 증대되고 있지만, 높은 가격 탓에 살균 가습기 등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가습기의 매출도 이어지고 있다.

종류별로 가습기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촉촉한 겨울을 준비해보자.

전열식 가습기에 비해 풍부한 가습량을 장점으로 지니고 있는 초음파 가습기는 일정 주파수의 전기신호로 초음파를 발생시킴으로써 물에 일어나는 안개를 외부로 내보내 습도를 높이는데, 살균기능이 없어 세균이 살균되지 않은 채로 습기와 함께 분출될 수 있으므로 가습기 청소가 필수이다.

가습기 내에 자외선 살균기와 정수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나 살균력이 약해 일주일에 두 세 번은 물통을 별도로 살균, 소독해 주어야 한다. 또 사용하는 물은 수돗물 보다는 한번 끓여 식힌 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열식 가습기는 가습기 자체에서 물을 끓여 세균살균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뜨거운 물에서 나오는 증류수는 살균기능으로 중금속 등이 섞여 있지 않아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소비가 많고, 뜨거운 증기로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있는 가정집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최근에는 자동습도조절기능, 공기청정기능이 추가된 복합식 가습기나, 사무실 또는 1~2인 세대와 같이 작은 공간에 맞춘 미니가습기가 출시되고 있는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져 가습기에 따른 주의사항과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시민기자 최혜인〉

"삼목을 지켜라"

〈목·손목·발목〉

목부터 머리까지 따뜻 '넥 워머'

손목까지 감싸주는 '기능성 장갑'

보온성 극대화 '방한부츠' 필수

추워진 날씨에 체감 기온이 영하를 밑돌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이다. 특히 올 겨울에는 작년 못지않은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추위를 막아 줄 수 있는 다운 재킷 등 방한용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날씨에 효과적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건강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삼(三)목' 보호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칼 바람 비켜… 목부터 머리까지 감싸주는 멀티형 넥워머=추위를 가장 쉽게 느끼는 목을 보호하는 넥워머는 머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멀티형 제품들로 진화했다.

네파에서는 '브리 넥워머'를 출시했다. 플리스와 벨로어 소재를 양면에 각각 적용해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밑단이 곡선으로 처리돼 있어 윗단을 끈으로 조이면 비니로도 활용 가능한 제품이다. 블랙, 오렌지, 그린, 블루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3만5000원이다.

라푸마에서도 멀티 스카프 개념으로 목에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어밴드나 마스크로도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 나왔다. 스케이트보드나 트레킹 등 한겨울 아웃도어 활동에 쓰기 좋다. 가격은 3만9000원선이다.

◇놓치기 쉬운 발목 보온따뜻한 부츠로 챙기자=발목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운동화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게다가 자주 내려 쌓인 눈 때문에 신발이 젖는다면 체온이 더 떨어져 추위를 심하게 느낄 수 밖에 없다.

휠라 아웃도어의 '아스펜(ASPEN)'은 도심 및 야외활동 시 편안하고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여성용 방한 부츠다.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정도로 감각적이고 멋스러우면서도 아웃도어 본연의 기능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외피를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퍼(Fur)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방수 및 투습 기능이 뛰어난 4레이어 옵티맥스 테크(4Layer Optimax Tech) 소재를 사용해 눈 위에서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다. 아이보리와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기존 13만5000원에서 30% 할인된 9만4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손목 감싸주는 기능성 장갑이면 겨울 추위도 안녕=손목을 감싸주는 장갑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소품 중 하나. 장갑은 외출 시 손을 보호하며, 겨울철 동상 방지를 위해서 기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또 추위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는 손목까지 감싸줄 수 있도록 목이 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레드페이스에서 출시한 '콘트로 프로 모건 맨 글러브'는 방수, 방풍 기능과 더불어 투습력이 뛰어난 콘트라텍스 엑스투오 프로(CONTRA-TEX, X$_2$0 PRO)소재를 사용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웨스트 우드'에서는 야외 활동 시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성을 보장하면서도 컬러풀한 색감을 갖춘 디자인의 장갑 제품을 출시했다. 내피로 보온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해 따뜻함을 더했으며, 손목 부분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벨트로 조일 수 있다. 가격은 2만~5만원대.

전문가들은 "영하의 날씨에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과 발목, 손목의 '삼목'을 감싸줄 수 있고 보온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민기자 김정미〉

"포장이사 피해, 소비자원에 도움 요청하세요"

업체 책임 회피… 배상률 38%뿐

일반 이사보다 비싼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도 이삿짐이 파손·훼손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만 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사례는 188건(38.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배상 이외에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분실 등을 입증하지 못해 소비자가 중재를 포기한 '기타 정보제공'이 188건(38.0%), 협의에 실패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조정신청'이 104건(21.0%)을 차지해 업체들의 책임 회피가 배상이 적은 원인으로 파악됐다.

가맹점 형태의 대형 포장이사 업체 역시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가맹점 형태의 업체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전체(495건) 가운데 156건(31.5%)이었다.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33.3%(52건)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맹점 형태의 포장이사 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156건(31.5%) 가운데 33건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상호로 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짐 정리 거부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78건(15.8%), '이사화물의 분실' 피해가 75건(15.2%)이었다.

소비자원은 "상법에 따라 가맹본사는 가맹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정상 매매

14평 OP, 1세대
- 16층, 주거겸 사무실
- 전망좋음, 무등산 쪽
- 시세, 5000만원 정도
- 급매, 3300만원

29평 OP, 2세대
- 10층, 12층, 주거겸 사무실
- 로얄층, 하천쪽
- 시세, 1억원 정도
- 급매, 6500만원

53평 사무실, 1세대
- 9층, 사무실 전용
- 전망좋음, 코너(창가)
- 시세, 2억원 정도
- 급매, 1억3500만원

77평 사무실, 1세대
- 20층, 사무실 전용
- 최상층, 전체 올수리
- 시세, 4억원 정도
- 급매, 2억7천만원

수익성 좋은 1층 상가, 25평
- 오피스텔 정문 코너
- 현재, CU편의점 임대중(보3천만원에 월125만원)
- 법인체로 양도 양수 할 경우 이전비 없음
- 시세, 2억5천만원 정도
- 급매, 1억7500만원

주인이 직접 매매 합니다.
H. 010-3605-5000